EC, 용제 배출금지 입법“채비”

1999년까지 30% 감축…연간 24억달러 부담 예상

EC 회원국들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오염원인 용제의 배출금지에 관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EC 회원국 대표들은 올해 9월 이 법안의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어 화학산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용제 배출금지법 초안의 규제대상 용제는 Perchlorethylene,Trichlorethylene, Methylene Chloride, Methanol, Acetonitrille, Methyl glycol ether, Methylglycol ether acetate, Ethyl glycol ether acetate 등이며, IPPC(오염확산방지규제)법에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용제 사용량이 연간 2톤 및 시간당 2KG인 소기업에도 적용토록 되어 있다.
이 법의 부록Ⅱ에 속한 용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다른 물질로 대체토록 되어 있어 이들 법이 효력을 발생할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용제배출 금지에 관한 법률 초안은 솔벤트 사용량을 현재 연간 170만톤에서 15% 감소한 145만톤으로 감축하고 불법방출에 대해서는 배출 한계치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록에서는 솔벤트를 발암 및 돌연변이 유발 또는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물지로 규정하여 배출량이 시간당 10g을 넘을 경우 연1회, 100g을 넘으면 계속적으로 감독토록 되어 있다.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이 용제를 사용하는 인쇄·표백·차량코팅·드라이 크리닝·금속·목재·플래스틱·섬유·방직, 필름 및 종이 표면코팅, 피혁코팅, 접착제 사용, 코팅 잉크 및 접착제 제조, 고무가공 및 중간체, 목재 관련업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프랑스와 영국의 화학산업협회가 작성한 연구보고서는 향후 20년동안 연간 24억 달러에 달하는 환경오염 방지비용을 업계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Cefic은 업계의 과중한 재정부담을 절감키 위한 방안들을 제안해왔으며, EC 위원회는 이 법이 초래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범유럽 경제모델 구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97년 발효될 예정이며, 90년 기준 용제 배출량을 99년까지 30%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공급과잉이 예상된다.

<화학저널 1993/8/9>